

## 익산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

회의일시	2024. 4. 23. 14:00~14:40	회의장소	익산시청 소회의실
참석자	허전, 배석희, 권진철, 김원요, 맹진용, 송승욱, 정성환		
회의안건			
▶ 하수도요금 인상(안) 심의 - 2024년 ~ 2028년까지 5회에 걸쳐 10%씩 하수도 요금 인상 - 2024년 7월 고지분부터 인상 추진			
회의결과			
▶ 원안 가결			
회의내용			
▶ (위원장) 허전 : 인사말씀 및 안건상정 [제안설명 : 하수도과장 이정노] ▶ (위원장) 허전 :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람. 몇 년부터 동결된 건가요? ▶ (하수도과장) 이정노 : 2016년~2020년도까지 매년 5개년 인상추진하다가 경기가 좋지 않아 2019년 4월부터 2018년 단가로 동결한 후 요금 부과 징수하고 있음. 6년 정도 동결중임. ▶ (위원) 김원요 : 그렇게 인상을 하면 얼마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가요? ▶ (하수도과장) 이정노 : 2024년 7월 고지분부터 인상 추진 계획 중에 있으며, 인상에 따른 ‘24년도(1차년도) 수입은 12억 정도로 추정하며, ‘25년도(2차년도)~‘28년도(5차년도)까지 약 22억씩 정도로 추정하고 있음. 2023년도 세외수입이 211억으로, 22억 증가하면 차후 세외수입의 경우 233억 정도로 예상함. 현재 물가 상황을 감안하고, 주민들의 체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해 10% 인상하는 것으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권진철 : 10% 인상이면 너무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 (하수도과장) 이정노 : 금액측면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정용의 경우 1·2차년도에 60원, 3·4차년도 70원, 5차년도에 80원 정도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권진철 : 연도별로 10%씩이면 28년도에는 가격이 배 차이가 나는데, 소비자 불만이 없을까요?			

## 회의내용

- ▶ (하수도과장) 이정노 : 저희가 시민(소비자) 불만도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재원수입 80%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20%를 위해) 최소한으로 340억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일반전입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억원 정도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등 주민들이 생활하수 처리에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은 최소한으로 10% 인상(60원, 70원으로 현재 가정용 단가 550원에서 마지막 연도(2028년도)는 890원)은 추진해야해 하수도요금 인상 추진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요금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 현실화율(전주, 군산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우리시 현실화율을 비교해 상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 (위원) 김원요 : 시민들이나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인상을 안하면 좋겠지만,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니 문제군요.
- ▶ (위원장) 허전 : 보아하니 원래 추진계획에 따라 매년 순차적이고 계획적으로 인상을 했더라면 좋았을텐데요. '19년부터 6년동안 동결하다보니 어려움이 있는 듯합니다. 매년 일반회계에서 120억 정도를 보전 받고 있죠?
- ▶ (하수도과장) 이정노 : 올해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지방비 시비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게 340억 정도 필요한데요. 일반전입금을 가져왔는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분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생활하수를 처리해드려야하고요. 노후관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도 만성적으로 장기화되어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으로 인상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니 긍정적 심의 부탁드립니다
- ▶ (위원) 김원요 : 만약 위원회에서 반대하면 인상 추진을 못하는 건가요?
- ▶ (하수도과장) 이정노 : 조례상 하수도요금의 경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합니다.
- ▶ (위원) 권진철 :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 (위원일동) : 맞습니다.
- ▶ (위원장) 허전 : 현재 현실화율은 29%인데, '28년까지 인상되면 현실화율이 어느정도 인가요?
- ▶ (하수도과장) 이정노 : 안건 상정한대로 인상시(2028년 기준) 예상 현실화율은 44.98%입니다. 인상을 하더라도 현재 전국평균 현실화율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 (위원장) 허전 : 10%씩 인상하더라도 현재 전국평균 현실화율에는 미치지 못하네요.

## 회의내용

- ▶ (위원) 맹진용 : 상수도요금도 작년부터 인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민원)은 없었나요?
- ▶ (하수도과장) 이정노 : 상수도과와 소통결과 시민들의 큰 불편사항은 없다고 회신받았습니다.
- ▶ (위원장) 허전 : 일반 가정용 단가는 현재 기준 550원이고 2028년 인상시 단가는 890원인데 보통 가정에서의 월별 납부 금액은 얼마인가요?
- ▶ (위원) 권진철 : 하수도는 상수도 쓴 만큼 내는 거잖아요?
- ▶ (하수도과장) 이정노 : 저희가 가정용단가는 550원이고, 현재는 1인가정 기준으로 2,750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4인가구 일때는 13,800원 정도 입니다
- ▶ (위원) 송승욱 : 4인가족 기준 연도마다 1,500원에서 2,000원씩을 연도 부담액에 더해 부담해야한다는 거잖아요?
- ▶ (하수도과장) 이정노 : 1차년도에는 1,400원 정도이고요.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 ▶ (위원) 권진철 : 금액적으로는 그렇지만 해마다 10%씩 올린다는 게 좀 부담이 됩니다.
- ▶ (부위원장) 배석희 : 올라도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는 부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하수도과장) 이정노 : 지금 세대는 주로 1인가족이나 2인가족이거든요. 1인가족일때는 2,750원 부과를 하고 있고요. 1차년도에는 300원 인상을 합니다. 2인가구는 현행은 5,500원정도 납부를 하시는데, 저희가 1차연도에 인상을 하면 600원 정도 인상합니다.
- ▶ (위원) 송승욱 :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국평균에 맞춰야할 필요성에는 공감할 합니다. 또, 하수도 특별회계가 계속해서 일반 회계에서 보전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가거든요? 100억 넘게 빌려오잖아요? 하수도정비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시비를 매칭 해야합니다. 그만큼 매칭비용이 없어서 국비를 확보하고도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 어떻게든 재원확보를 해야하긴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설득 및 이해작업을 위한 (대응을 잘 하신다고 했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입장에서 첨언을 하자면, 하수도 공사(상수도공사도 마찬가지인데)가 땅을 복개하면, 교통불편을 일으킵니다. 그 부분을 최소화해주셨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하수도 작업을 위해 복개하고 덮었는데, 전선과 통신 때문에 또 복개해야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서가 연계가 잘 안되는 부분이라고 지적받고 있는데요. 부시장님께서 한번에 하는 걸로 좀 잘 챙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회의내용

- ▶ (위원장) 허전 : 말씀해주시는 작업들 모두 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못하게 그런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수도 관련해 전임 부시장님부터 국비 확보 등을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국비를 확보해도 대응자금(시비 부담금)을 못 낼 정도의 사정입니다. 현실화율이 너무나 떨어져서 어느 정도 타시군과 맞춰가자고 하는 건데요. 10%라고 하니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6년 전부터 장기간 동결되어 있다보니 현실화율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토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다보니 위원님들께서도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도 불가피하게 인상하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하수도과장) 이정노 : 시민들의 부담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하수도 특별회계는 대부분 재원수입이 하수도사용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부담금도 있지만), 말씀해주셨다시피 국비사업을 공모해 확보해 340억 시비가 필요한 데도 지자체부담금이 없어 곤란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저희 시의 경우 시설은 98%가 되어 있지만, 노후관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수도과에서는 노후관로 사업 보수등을 합니다. 시비가 적다보니 이런 보수 작업 등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습니다. 어쨌게든 최소한으로라도 재원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상황이고요. 이전 인상계획은 추진하다 중단했는데, 그 때는 한 개년도에 25%정도 인상을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계획의 경우 저희가 최소한으로 인상해 사업을 신속 추진해 불편을 해소해야하는 사항인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이번 요금인상으로 전국 평균을 맞추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못하고요. 최소 비용으로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니까요. 특별회계 건전성 등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니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 검토 부탁드립니다.
- ▶ (위원) 권진철 : 인상의 필요성은 느끼는데요. 시기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공공요금까지 올려버리면 소비자불만은 당연히 나올 것이고, 지역경제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 ▶ (하수도과장) 이정노 :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높고, 경기도 안 좋은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하반기 물가 안정을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감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회의내용

- ▶ (위원장) 허전 : 일단은 결국 하수도사업을 못하면 시민들에게 불편이 돌아가고, 국비 대비해 지방비 부담은 20%인데도 너무나 부담이 되어서 일반보전금으로 연 100억씩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타시군에 비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도 많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야겠지만, 일단은 이(안)대로 가다가 인상(안)이 시민들의 너무 큰 부담 초래시 다시 심의하는 등의 방안은 어떨까요? 하수도과장님께서 ‘19년부터 인상하다 동결되었다고 하셨죠?
- ▶ (하수도과장) 이정노 : 네. 6년간 동결되었고 그동안 하수도 사업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신설보다는 보수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자체 세외수입으로 요금 외에 수입이 없어 하수도 요금 6년 동결로 인해 사업 자체 재원 마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 ▶ (위원) 김원요 : 토의가 계속되어도 시민 부담과 시 재정 건전성 부분의 대립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을 공공에서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요.
- ▶ (위원) 송승욱 :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표결을 하는 건가요?
- ▶ (위원장) 허전 : 격의 없이 의견을 내고 계속 토의를 진행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송승욱 : 현재는 부서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 ▶ (위원) 맹진용 : 100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된다면 그 또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이 하수도 특별회계 보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인상을 했을 때 보전되지 않을 이 100억이 또 더 많은 시민들한테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한 분담이라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 (위원) 권진철 : 저도 부서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 ▶ (위원장) 허전 : 시민들의 부담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 재정에 부담으로 와달아 인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도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한도내에서 인상(안)을 마련했으니 위원님들께서 저희 인상(안)에 대해 동의해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김원요 : 이번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 ▶ (위원일동) : 안건에 대해 동의합니다.
- ▶ (위원장) 허전 : 심의안에 대해서 동의해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